가족이 된 동물들: 반려동물 돌봄 실천의 잠재적 환경 영향

류호재* · 윤순진 · 김기원*** · 이은재*** · 박아름*****

*주저자,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, kjknss@snu.ac.kr
** 교신저자,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, ecodemo@snu.ac.kr
*** 공동저자,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

연구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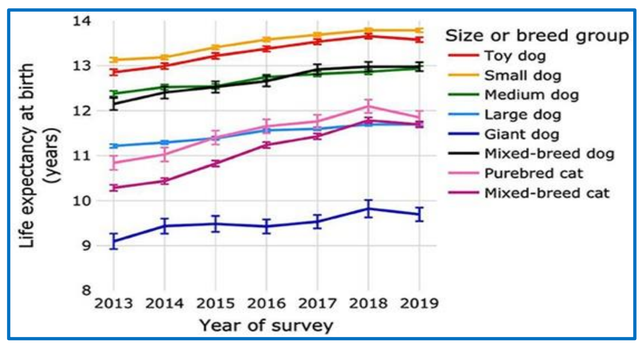
반려동물과 인간의 관계

- 전국 반려동물 입양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26.7%
- 반려동물의 수는 증가하는 한편, 개별 반려동물의 삶의 질도 상승
- 개별 가구가 반려동물에 쓰는 비용도 증가

우리나라 개, 고양이 수 추정치(자료 : 농식품부)

	반려견 수	반려묘 수
2018년	5,072,272	1,280,400
2019년	5,984,903	2,579,186
2020년	6,017,991	2,582,824
2021년	5,178,614	2,254,321
2022년	5,447,952	2,540,561

DailyVET



반려동물 양육과 환경적 영향

- 기후변화의 원인은 인간 활동

→ 가족화 된 반려동물 돌봄도 에너지, 자원 집약적인 인간 활동이지 않을까?

문헌검토 및 이론적 배경

반려동물 양육의 환경적 영향

- 미국 반려동물이 섭취하는 식품 – 미국인이 섭취하는 양의 20% (Okin, 2017)
- 반려동물 사료의 온실가스 - 농업 배출량의 1.1% ~ 2.9% (Alexander et al., 2020)
- 현재 연구의 한계: 대사활동만 고려, 인간-반려동물 관계 측면 미반영

반려동물과 인간의 관계 – 아동화와 가족화

- 반려동물은 인간의 '재산'이 아니라 '가족'으로 관계가 변화해옴
- 아동화(babyfication): 반려동물을 동물이 아닌 '인간 아동'으로 의인화하는 현상

→반려동물을 '애기', '아이', '내 새끼' 등으로 호칭하기 시작(Volsche et al, 2022)

→반려동물 아동화는 곧 인간-반려동물 관계가 부모–자녀 가족 관계가 된 것

이러한 관계 설정이 반려동물 돌봄 방식에 반영되면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?

반려동물 돌봄 실천과 환경

- 반려동물이기 이전에 종 자체가 가진 **'자연적 습성'** 있음



- 배변으로 영역 표시 습성



- 모래로 배변 흔적 덮는 습성



- 발톱 관리 위해 나무 표면을 긁는 습성

이런 습성들이 인간이 사는 집에서 그대로 나타나면 ???

→ 하루도 못 가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될 것이다.

→ 그러므로 '반려동물 돌봄' 실천이 나타났다.



- 배변패드에 영역 표시하도록 훈련성



- 모래 화장실로 배변 유도



- 스크래쳐, 캣타워 등 제공하여 해소

돌봄 실천은 물질, 에너지 집약적 … 환경 영향이 예상됨

연구방법

질적연구 : FGI와 심층면접 수행하여 반려동물 돌봄 실천 조사 분석함

– 개 보호자 9인, 고양이 보호자 8인

연구결과

1) 신체적 돌봄

- 여름/겨울에 반려동물 돌봄을 위한 냉, 난방 사용

→ 심지어 보호자가 외출 중일 때도 반려동물을 위해 냉,난방 가동

> "난방비가 요새 너무 비싸기도 하고, 또 저는 추위랑 더위를 잘 안 타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고양이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… 저도 이제 온습도계 보면서 냉,난방을 해요. – 고양이 A -

- 반려동물 위생 관리를 위한 각종 가전제품과 일회용품에 의존

→ 털날림, 침흘림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세탁기, 건조기, 청소기 사용 빈도 상승

→ 물티슈, 배변패드 등 일회용 청결용품을 활용

> "강아지가 자꾸 바닥에서 밥을 안 먹고 자꾸 옮겨와서 먹어서 쿠션이나 이런게 오염되고, 또 침대에서 같이 자니까 또 막 다 핥아놔서 자주 빨아야 해요." - 강아지 C –
>
> "배변 패드도 같이 생각하다가 찾아보니까 (다회용이) 있더라고요. 근데 빨아 쓰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빨래하는 것도 일이고.. 그래서 부직포(일회용)를 쓰죠." - 강아지 D -

2) 정서적 돌봄

- '살아있는 삶'을 넘어 '행복한 삶'을 주는 돌봄

→ 각종 장난감, 가구, 시청각 자극물 제공하기

> *"스크래쳐는 지속 불가능이에요. 그건 좀 지저분하거나 많이 긁으면 버리고 다시 사줘야 돼" – 고양이 C –*
>
> *"제가 같이 있을 때 이제 얘가 좀 심심한가 싶으면 이제 실내 조명을 무드등을 켜놓긴 해요. 그러면 이제 밤 위에 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늘 계속 쳐다보고 …" - 고양이 E –*

3) 보호자가 부재중인 상황

- 시청각 기기를 사용해서 돌봄 공백 최소화 노력

→ TV, 조명, 유치원 등으로 정서 안정 및 놀이

> *" 저는 외출할 때 TV를 틀어두는데 '도그 TV'라고 채널이 있어요. (그걸 틀면) 아침에는 백색소음도 나오고 산이나 풍경 영상도 많이 나와서 강아지가 좋아해요." - 강아지 B –*
>
> *"불을 꺼놓으면 애가 무서워해요. 그게 보여요. 원래 짖지도 않는데, 불이 꺼져 있으면 좀 짖고 그래서 … (불을 켜두고 나가요)" - 강아지 F –*
>
> *"계획은 있어요. (…) 저는 동네 유치원에 예약 걸어놨는데 두 달째 대기가 안 빠져.. - 강아지 C -*

4) 반려동물과의 외출

- 반려동물 돌봄 목적으로 동반 외출 시 교통수단 선택에 큰 제약이 생김

→ 자가용, 펫 택시, 택시 등 개인 이동수단 외에는 대안 없다고 느낌

> *"대중교통은 아예 고려해본 적이 없고요, 비용같은거 따져봐도 택시 타는게 그냥 압도적으로 편해서 택시를 탑니다." - 고양이 G –*
>
> *"저희 강아지는 그래도 좀 소형견이라 백팩을 이용하는 경우도 가끔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있긴 한데 만약에 자가용이 사용이 불가능하면 안 나가지 다른 대안을 강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" - 강아지 F -*

5) 연구결과 정리 – 에너지와 폐기물 측면으로

- (1) 에너지 소비 관련

외출 중 에어컨, 난방 이용, 반려동물 유치원 등하교, 가전제품 사용 횟수 증가, 외출 중 TV, 조명 켜놓기, 자가용과 택시 의존

- (2) 폐기물 배출 관련

일회용 배변패드, 물티슈 사용 증가, 스크래쳐, 장난감, 가구 소비, 다수 가전제품 이용 의존에 따른 미래 전자 폐기물 증가

결론

-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며, 돌보는 방식이 폐기물,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
- 배변패드 등 일회용품은 다회용품 전환 인식 개선 필요
- 반려동물 동반 외출 시 자가용 의존이 두드러짐 → 반려동물 대중교통 제도화 필요

→ 반려동물 대중교통비 징수하여 권리와 책임을 함께(유럽 여러 국가가 그렇게 하는중)

Toward '반려동물 문화 3.0'